

# “우주전체 풀어야 할 화두”

##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 禪불교 ②

깨달음을 통한 자아발견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선사들은 가끔 화두 대신 거친 방법을 썼다. 한번은 수로화상이 마조(馬祖)를 방문하여 물었다. “달마조사가 서방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대답 대신 마조는 그에게 짚을 하라고 명했다. 수로는 몸을 숙이자마자 마조는 그를 짓밟았다. 이상하게도 수로는 당장에 깨달게 되었다. 일어나 손뼉을 치고 웃으면서 말했다. “기이하고 기이하다. 수백 수천의 삼매(三昧)와 무량한 묘의(妙義)가 한 터럭 끝에 그 근원을 두고 있구나!” 그는 스승에게 큰 짚을 물리고 물러갔다. 수로는 후에 방장이 되었고 난 후 가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조가 나를 짓밟은 후, 나는 즐겁고 있다.”

다른 선사들도 활(喝:고함소리)이나 방(棒:방망이) 등 충격요법을 사용했다. 덕산(德山)은 깨달기 전에, 용담(龍潭) 선사가 있는 절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 어느날 저녁, 선사가 좌정하고 있던 덕산에게 말했다. “밤이 깊었는데 어찌 불러가 쉬지 않는가?” 덕산은 인사를 드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밖으로 나갔다가 곧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부이 너무 어두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선사는 호롱불을 켜서 그에게 건네 주었다. 그러나 덕산이 막 호롱불을 받으려하자 선사는 갑자기 불을 훑어버렸다. 이 순간에 덕산은 문득 깨달았다고 스승에게 예배하였다.

선불교는 기독교나 이슬람 신비주의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단에 불과한 논리적 도식(圖式)을 믿지 않는다. 수입권의 ‘신화대전’도 진리에 대한 구체적 체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감각을 통한 인식보다는 직관적 인식을 더 선호한다. 셋째, 논리적 갑론을박을 초월하여 결정적 확신을 안겨주는 절대지(絕對智)를 추구한다. 이것을 파악한 사람은 전체(前提)나 결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는 현 단계에서의 사물들의 대립관계가 보다 높은 차원에서는 모두 통합된다는 것을 인지한다. 따라서 세속적인 도덕윤리관을 초월할 수 있게 된다. 성 여거스틴이 “먼저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해도 되리라”고 말한 것은, 깊은 사랑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약한 행위를 할 수 없으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넷째, 예고의 소멸을 말한다. 과거의 개인적 삶은 전체 속으로 용해되고 그때 경화와 법열(法悅)이 보상처럼 따라온다. 다섯째, 자아와 살타민성이 모두

일체감을 가진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블레이크는 이렇게 노래했다.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보고, 들꽃 속에서 하늘을 본다. 너의 손바닥 안에 무한(無限, infinity)이 있으며, 찰라 속에 영원이 깃든다.” 여섯째,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이 종교들 사이의 차이점도 크다. 불교는 유일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선불교에선 무조건 믿는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 유대교와 그 지파인 기독교와 이슬람에서는 달리, 선불교에는 죄와 참회 그리고 용서라는 감성적인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은 기도와 두려움, 신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그리고 속죄 등에 의해 얻어지지 않는다. 덕산선사는 결코 기도하지도 않았고, 죄의 사함을 빌지도 않았으며, 불



▷내적 깨달음을 궁극의 목표로 하는 선불교는 그 가르침이 전해진 사회의 일상생활과 곳곳이 · 검술 · 공술은 물론 다도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 꽃봉오리 열리듯 얻는 깨달음 지적 이해보다 체험 · 직관 중시 역대선사 고함 · 방망이 충격요법 활용 다도 · 꽃꽂이 등 생활禪 정착

상(佛堂)을 숭배하지도 않았다. 그는 경전에 매달리지도 않았고, 촛불을 켜고 두 손을 빌지도 않았다. 그의 생각에 그런 행위들은 형식적인 의례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깨달음을 향한 꾸준하고 집중적인 노력이었다.

대해(大慧)선사는 깨달음을 막 꺼지려는 촛불이나 우리 목에 단 칼날로 비유했다. 이 우주 전체가 우리가 풀어야 할 생생한 화두이다. 모든 화두는 사실 우주라는 큰 화두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부분은 전체를 머금고 있다. 일종 일체(一即一切)요, 다중일(多中一)이다. 작은 화두 하나가 풀리면, 우주 전체가 드러난다.

불교교리를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적 깨달음의 무아경(無我境)이다. 인도에서 흔히 쓰는 여행자의 비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 피곤하고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샘이 있는 곳의 길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길을 아는 것은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과는 다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샘이 있는 곳

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사막은 생사로 가득한 속세이고, 목마른 여행자는 우리 모두이며, 길을 가리켜 준 자는 부처님이고, 샘은 열반(涅槃)이다.

불교는 언어와 변론을 믿지 않는다. 앞에서 얘기한대로, 붓다는 초기 설법에서, 화살에 맞은 사람에게 시급한 것은 화살에 맞은 이유가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했다. 선불교는 이 가르침에 충실하여 모든 의례와 논리와 사변에 앞서 정각(正覺)에 비중을 둔다. 따라서 갑자기 열린 꽃봉오리에 흔히 비유되는 깨달음이야말로 선의 시작이자 끝이다.

선(禪)은 그 가르침이 퍼졌던 사회의 일상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건축, 시, 회화, 서도 등 많은 예술이 선미(禪味)를 담고있다. 신중한 생각과 암시가 그 생명이다. 동양화의 여백미와 일본의 단시(短詩) 하이쿠(俳句)가 그것을 잘 보여준다. 하이쿠는 5·7·5조의 단시이다.

바탕에 너울대는/물결을 이슬방울/덧없는 인생

인형가게에 들린/자식없는 부인/만지작 만지작 인형을 못놓네  
강물에 출렁이는/살구꽃·그림자/떠내려가진 않네  
난간에 기대어/가을달을 바라보니/내 본래 얼굴이로다

검술과 공술의 고된 수련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흔히 정신수양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 숙련된 공사는 어둠속에서도 정확히 과녁을 맞춘다. 그는 정신적 안정을 통해 어둠을 꿰뚫는 심안(心眼)을 터득한 것이다.

생활속의 선불교는 일본에서 토착화 되면서 일본에순환의 기저를 이루었다. 불교의 유입과 함께 꽃꽂이가 시작되었다. 처음에 사원에서 의식(儀式)으로 시작된 꽃꽂이는 후에 민간에서도 널리 행해졌다. 꽃꽂이의 미학은 기묘한 불균형을 이루는 디자인 형태에 달려 있다. 그것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상징하는 세 요소의 조화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에 꽃꽂이 하는 사람의 신앙적 정성이 깃들면 그 아름다움은 배가 된다.

일본식 정원도 유명하다. 작은 공간에 바위와 관목 그리고 물로 자연스러움을 창조한다.

다도(茶道) 또한 선불교적 정서의 산물이다. 차를 마시는 일상의 작은 행위도 생의 오묘한 이면을 드러내고 고양시키는 신성한 종교적 의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편역 : 김 흥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 나의 수행일기



황경환 (숙제 피플루피플 학교본부총장)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내 생활의 밑바닥에는 아버님의 절박한 체험담이 있다. 해방전에 일본에서 기술자로 오래 사셨던 아버지는 해방조국에 와서 많은 돈을 사기당하고 작은 동력선으로 고기잡이를 하기도 했고 정미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어려운 시대에 살기 바쁜 고단한 삶이었던 셈이다.

아버지는 무슨 경전을 공부 했다거나 절에 꼬박꼬박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다. 어머니 역시 이를 있는 날이나 불공을 올리러 절을 찾아 갈 뿐 우리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신 적은 없었다. 그래도 두 분의 삶은 나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다. 특히 절박한 순간에 관세음보살님을 불러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아버지의 얘기는 수백번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새 로웠다. 그 경외의 체험담이 나를 불자가 될 수 밖에 없도록 결정지었던 것 같다. 어린시절 아버님의 무릎에서 들은 이야기 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고 내 생활의 중

다. 아버지는 해업을 칠 줄 몰랐기 때문에 바다에서 몹시 고생을 해야 했다. 빈 배에 먼저 올라타는 사람만 살아날 수 있는 그 절박한 순간 아버지는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다른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고 오직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했다는 것이다. 평소 수행을 못하 는 아버지는 만약을 대비해 배 뒷쪽에 로 프를 늘어뜨려 두었는데 관음보살을 한참 부르며 허우적거렸다 그 로프 생각이 났고 그 순간 다시 바다 속 깊이 빠져들어가 갔다 떠 올랐다. 그런데 다시 떠 오르면 통대나 무 토막이 손에 잡히는 걸 느끼고 정신을 가다듬었고 그 순간 아스리한 어떤 소리도 들었다.

## “절박한 순간에 부른 관세음보살”

### 아버지의 구사일생 체험담 내 믿음의 씨앗

요한 지침이다. 아버님은 장사꾼들의 집을 싫어하다 주는 작은 운반선을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실을 아버지가 맡고 매형이 선장을 맡아 제법 밥 먹고 살만큼 일을 했다.



어느날 전장한 중년 두 사람이 방어진에서 부산까지 집을 싫어달라고 청해왔다. 날도 저물고 웬지 기분이 좋지 않아 거절할 생각이 들

었다. 아버지는 관세음보살이 살려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 그를 끌어 올렸다. 그는 이발사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고고 꼬여서 동행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산까지 가지고 했지만 일본이 목격지였고 배에서 아버지와 매형을 처치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잠언어른 살았심더!” 그 소리는 매형이 부르는 소리였다. 아버지가 배 뒷전의 줄을 잡고 배위로 올라가 숨을 몰아 쉬고 난 후에야 매형은 얼굴에 총알이 박혀 있음을 알았다. 범인 중의 한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한 사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배위로 기어 올

렸다. 아버지는 관세음보살이 살려준데 대한 감사의 마음에 그를 끌어 올렸다. 그는 이발사였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고고 꼬여서 동행을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산까지 가지고 했지만 일본이 목격지였고 배에서 아버지와 매형을 처치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신나고 한편으로 아슬하게 그 지 없는 아버지의 이야기. 어른이 된 어느 날 나는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서 그 전설같은 감동을 현실적 수행체감으로 느낄 수 있었다.

“만약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설령 큰 불에 들어 갈 지라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니 이 보살의 위엄과 신비로운 힘으로 말미암은 까닭이며 만약 큰 불에 빠지는 바가 될지라도 그 명호를 부르면 곧 얇은 물을 얻으며...”

네 사람은 바다로 떨어졌고 동력을 끊지 않은 배는 혼자 물살을 깔랐다. 다행히 매형이 청술을 발로 걸어 차 버린 탓에 배는 전진하지 않고 원을 그리며 돌고만 있었

# 대원불교대학

##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 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9월 30일까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교과목

1학기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기	3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I
4학기	5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 교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7.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